

소상공인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 자본이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에 미치는 영향 : 창업 컨설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봉구원^{1*}, 김종규²

¹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수료, ²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The Effect of Small Business Own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Anxiety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Consulting

Gu-Won Bong^{1*}, Joong-Gyoo Kim²

¹Ph.D Candidate, Dept. of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²Professor,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Hoseo University

요 약 생계형 창업의 절박함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등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에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선행요인과 창업의지 및 불안과의 관계에서 창업컨설팅 경험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223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의지에는 모든 개인적 특성, 네트워크, 신뢰 자본과 컨설팅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창업불안에는 외적통제성과 호혜성 규범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컨설팅 경험은 위험감수성향과 네트워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고, 외적 통제성이 창업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창업불안과 창업의지의 차별적 효과 및 창업컨설팅의 조절 효과를 규명한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후속연구에서는 창업불안에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창업의지, 창업불안, 창업 컨설팅, 개인적 특성, 사회 자본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ed wheth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have distinctive influence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and whether entrepreneurship consulting h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context of high interest in entrepreneurship with 223 data. All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network, trust, and consulting experienc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while the external control and reciprocity norm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ntrepreneurial anxiety. The experience of consulting revealed that it has a moderating effect of weakening influence of risk-taking tendency and network on the entrepreneurial will and strengthening the influence of external control on the entrepreneurial anxiety.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terms of distinguish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anxie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onsulting. In future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verification of entrepreneurial anxiety should be done.

Key Words :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anxiety, Consult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cial capital

*Corresponding Author : Gu-Won Bong(sigmaman6@daum.net)

Received February 4, 2019

Accepted March 20, 2019

Revised March 6,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1. 서론

최근 정부에서 창업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내어놓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창업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년 내에 폐업하는 업체가 줄을 잇고 있으며 창업된 업체의 대부분은 생계형 창업인 실정이다. 생계형 창업은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아이템으로 손꼽히는 음식·숙박업(27.3%)과 ‘도소매업’(26.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의 분야들은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하며,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자가 해당된다.)

생계형 창업은 먹고 사는 문제라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에 앞서 실패에 대한 이유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생계형 창업에 대해 외식사업가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씨는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소상공인 창업, 특히 외식업 창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쉬운 창업 절차로 인해 창업시장 진입이 쉬워 미처 준비를 다 하지 못하고 진출했다가 폐업하고 마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 창업 정책의 방향이 사후 지원이 아닌 창업자를 위한 사전 교육 제도 마련으로 준비단계를 탄탄히 하고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2]. 국내 전체 창업에서 생계형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3%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에서, 쉬운 창업 진출이 많은 수의 실패한 창업자를 낳는다는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다. 또한 2017년 기준 창업자 대비 폐업 비율은 72.2%에 이르고 있으며[3], 게다가 창업과 관련한 인식마저 부정적인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창업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서, 92.2%가 창업실패는 곧 개인파산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 사회라는 인식에도 75.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청년들의 창업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35.7%가 실패에 따른 두려움이 이유라고 밝혔으며 이 답변의 응답자 중 59%는 한국사회가 창업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창업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세대의 돌파구로, 혹은 은퇴한 노년 인구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창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생계형 창업의 절박함

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 불안,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원정책과 현실과의 괴리, 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창업을 꺼려하고 있다[1].

한편 학계의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창업 의지 및 성공요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는 창업 실패나, 창업 시도가 중단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4].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창업을 포기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창업 불안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을 단일 차원으로 여기고, 창업의지를 최종 중속변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5-7]. 하지만 특정 대상에 대해 사랑과 미움이 공존할 수 있고, 대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기대인 신뢰와 불신을 다른 개념으로 여긴 연구들[8-10]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도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창업의지는 창업 성공 행동과 연결되는 개념이며, 그와 반대로 창업 불안은 창업 포기 행위로 직결되는 차원으로 규정하였다.

소상공인의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행요인들이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창업불안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은 많은 연구들에서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소상공인 등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자를 둘러싼 환경, 즉 창업자가 창업을 할 때 물적 토대로 변환이 가능한 자본 형태로서의 사회자본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향 등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신뢰, 네트워크, 규범의 사회자본이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자본, 그리고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의 관계에 창업컨설팅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창업 인식 조사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지원이 아닌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주는 컨설팅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혀졌다[1]. 본 연구는 창업컨설팅의 조절 역할에 주목하여, 창업컨설팅 경험에 따라 선행요인과 창업의지 및 불안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창업컨설팅이 조절 요인으로 개인 특성과 사회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는 반면, 창업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소상공인의 창업은 먹고 산다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실무적인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준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현실과 유리된 연구가 다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창업 실패나 창업 중도 포기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적 차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2.1 창업의지와 창업불안

인간의 행동이 그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행동이론에 따르면, 창업의지는 직접적인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창업의지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Shapero(1982)의 창업이벤트모델(entrepreneurial event)에 따르면 의지는 “행동성향(propensity to act), 창업에 대해 개인이 끌리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각된 소망성(perceived desirability)과 개인이 창업에 대한 가능성의 정도인 지각된 타당성(perceived feasibility)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1]. 창업이벤트모델에서는 창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사에서 중요한 생애 이벤트가 창업에 대해 ‘지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의지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창업행동에 이르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12,13].

반면 창업을 성공하기까지 동인으로서 창업의지가 있다면 창업에 대해 불안을 느껴 창업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미리 겪지 않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 이후 재기 불능 등과 같은 부분은 창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4,14].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에서의 실패는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 실패를 하더라도 방어역할을 위한 쿠션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하기도 하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창업 성공 요인을 탐색하는 데에 많은 부분 할애되어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불안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4].

김은정(2017)은 불안을 일으키는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원인을 탐색한 연구에서 불안은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어떤 정서와 결합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있다고 설명한다[15]. 김향덕·이철규(2018)는 불안이라는 요소는 의지를 꺾게 만들기도 하는 변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행위를 중단하게 되는 요인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16]. 그들은 청년 창업의 중단 요인으로서 불안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불안에 대해 창업 이후 실패의 두려움을 가장 큰 동인으로 보았다. 이를 강화하는 요인은 부모의 반대, 사회의 실패자에 대한 낙인, 인식 등을 주요 동인으로 보았다[16]. 또한 창업에 대한 국민의식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창업 실패가 창업을 중단하는 데에 가장 두려운 이유이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1].

본 연구는 창업의지는 직접적인 창업 행동으로 이어져 창업을 지속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요인으로, 반면에 창업불안은 창업 중단과 실패 행동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2.2 개인적 특성과 사회자본

2.2.1 개인적 특성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이다[17]. 첫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적 특성에 대한 요인으로서 신념, 동기,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특정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구성하여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18,19]. 창업자가 부딪히게 되는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자신의 능력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은 창업지향성을 통한 기업성과 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오혜미 등(2014)은 Boyd와 Vozikis(1994)가 제시한 창업효능감 변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20]. 창업효능감은 어려운 상황을 제어하고 도전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특히 창업효능감은 창업의 시작을 결심하는 단계에서부터 동기에 대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밝혔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본 자기효능감은 일종의 자신감처럼 불확실한 환경에서 자신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에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어 행위까지 이어지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비슷하게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 역시 창업의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성취욕구는 어려운 일을 달성하려는 욕구, 장애를 극복하여 높은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욕구, 다른 사람과 경

쟁하여 능가하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는 욕구,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 등으로 정의된다[17]. 성취 욕구는 크게 직무성취욕구와 자아성취욕구로 구분된다. 직무를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직무성취욕구와 달리, 자아성취 욕구는 새로운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직무성취 욕구에 비해 자아성취 욕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창업과 좀 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6].

일반적으로 창업가는 높은 성취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위험에 대한 극복 의지가 높은 위험감수자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자신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에 있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도전적이면서 기꺼이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6,21].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과업을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는 것을 원하며 이는 성취욕구와의 깊은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에서 위험감수(risk taking) 성향이 개인적 특성에서 불가결한 요인이 된다. 위험감수성향은 투자 의사 결정의 결과는 미래의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서 위험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험감수는 창업가의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개인의 성향이라고 정의했다[17,22].

자기효능감과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은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질 창업이라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의지를 만드는 기제가 될 것이라 보았다. 실패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근거 있는 인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창업의지를 강화하여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에는 통제위치 성향이 필요하다.

통제위치(locus of control)는 주어린 환경에 대해 개인의 통제권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나타낸다[22]. 통제위치 성향은 개인이 어떤 일을 해석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그의 행동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며, 행운, 재수, 운명 때문에 왔든가 또는 그 주변에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외적통제에 대한 신념이라고 부른다. 반면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자기의 행동에 달렸다는지, 자신의 고정적 특성에 의해 바뀔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적 통제에 대한 신념이라고 한다

[22]. 본 연구에서는 이정원 등(2013)이 주목한 것처럼 외적 통제에 대한 신념이 더 강한 사람, 즉 우연에 의한 통제성이 높을수록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하게 되어 창업의지를 낮추거나 창업을 포기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2.2 사회 자본

사회적 자본이 최근 국내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해결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사회적 연계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이다[23]. 이러한 사회자본을 설명한 Bourdieu(1986)은 사회적 자본이 상호 지인 또는 어느 정도 제도화된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인식적 관계이며, 잠재적 자원의 집합이라 밝혔다[24].

먼저 신뢰(trust)는 관계의 근원으로서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정의되고 연구된다. Hosmer(1995)는 신뢰가 대인관계, 그룹행동, 경영효율성, 경제교류, 사회적 또는 정치적 안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 보았다[25]. 박지유와 양혜술(2014)은 신뢰는 타인이 나와 관련된 행동을 할 때 배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려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26],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며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수적 이라고 보았다[27].

사회적 네트워크(network)는 창업관련 연구 분야에서 창업의 기회발견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사회자본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가치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자산이다[27,28].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유대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구성원이 포함된 사회적 연결과 상호관계를 의미한다[27]. 박주연과 성창수(2016)는 네트워크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했다[29]. 첫째, 유대관계정도를 살펴보았으며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 주목했다. 둘째, 얼마나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했는지를 주목했다. 다양한 직업, 성격, 나이, 전문성, 학력 등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는가가 사회자본으로서의 네트워크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으로 이러한 요인이 창업의 업무생산성이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호혜적 규범(norms of reciprocity)은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지 체계와 관련된 무형의 자원으로 공유된 언어, 행동 양식, 규범체계, 해석 등의 의미를 제공하는 자원을 의미하며, 기업 간 또는 기업 내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30]. 기업에서 호혜적 규범이 중요한 이유는 구성원들이 상황과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조직이 요구하는 핵심가치 및 핵심역량을 제대로 인식하고, 일치된 목표달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밝혔다[27].

앞서 살펴본 개인적 특성이 창업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있어 그 동력이 개인 스스로에게 주어 진, 혹은 강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회자본의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은 창업상황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2.3 창업 컨설팅

김미진(2013)은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크게 자금지원,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31]. 첫째, 자금지원 제도는 1999년부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발생시점에 정책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경영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둘째, 교육지원 제도는 민간교육기관의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받기 어려운 계층을 포함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폭넓은 지원체계라고 볼 수 있다. 교육지원 제도는 준비 없이, 혹은 정보 부족 등으로 창업 실패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컨설팅지원 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케팅·점포운영·경영진단·세무·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으로 안정적 영기업반 확보 및 성공적 업종전환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각도로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책인 컨설팅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창업 교육이 주로 창업 이전의 준비단계에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반면 컨설팅은 단순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주로 법률이나 경영과 같은 전문가가 사업자에게 1:1로 맞춤형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실시한 창업 관련 국민의식 조

사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경우 ‘창업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구체화’시키는 방안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 창업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나 멘토와의 연결이 요구된다. 컨설팅은 창업과 관련된 질문 이외에도 법률이나 경영상의 전문가에게 물어볼 기회가 적은 분야에도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3.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에서 창업컨설팅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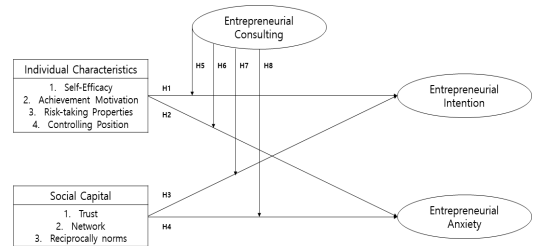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첫째,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통제위치 등 4개의 차원으로 구분한 소상공인의 개인적 특성과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등 3개의 요인으로 분류한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불확실한 환경적 요인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유발하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 어려운 일을 달성하려는 욕구인 성취욕구가 높고, 위험을 감수하고 조직이나 개인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높을수록 창업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17,21,32]. 통제위치 성향도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으로 나뉘는데 내적 통제성은 외부의 일을 자신이 마음먹기에, 행동하

기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외적 통제성은 우연에 의해 상황이 변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우연에 따라 달라지는 외적 통제성이 창업의지를 낮추고 창업불안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22,32].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 소상공인의 개인적 특성(자기효능감,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통제위치성향)은 창업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소상공인의 개인적 특성(자기효능감,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통제위치성향)은 창업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주로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등 3개의 요소로 분석되었다[27].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26,27]. 이에 따라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의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H3 : 소상공인의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은 창업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소상공인의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은 창업불안에 부정(-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등 창업지원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업의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선행요인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매개나 조절 효과로 연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6,32,33]. 조문연(2014)는 창업 준비 정도와 창업 성과 사이에서 창업교육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검증하였고[33], 유연호와 양동우(200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경험이 창업동기 부여와 지식 축적을 유발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34]. 또한 환경적 특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17], 그리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수진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의 성취욕구와 재무적 성과 사이에서 컨설팅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선행연구[35]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의 관계에서 창업컨설팅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론하였다.

- H5 : 창업컨설팅은 소상공인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6 : 창업컨설팅은 소상공인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불안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7 : 창업컨설팅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H8 : 창업컨설팅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자본과 창업불안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3.2 연구방법

3.2.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창업의지는 소상공인의 창업행동으로 이어져 창업을 지속하는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강재학(2015)과 박성호(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5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36,37]. 창업 불안은 소상공인의 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관한 척도는 김향덕과 이철규(2018), 박성호(2018), 현대경제연구원(2015)의 연구[1,16,37]에서 사용된 총 7개의 문항을 수정했으며, 구체적으로 창업실패 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 가정안전위험, 자신감 상실, 경기불안, 불안정한 소득 창업으로 인해 향후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될지 모른다는 불안, 창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을 포함하였다.

창업 컨설팅은 마케팅, 법률 등 창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1대1 맞춤형 지원을 의미하며,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1로 하는 더미(dummy)변수로 설정하였다.

소상공인의 개인적 특성 중 자기효능감은 창업시 부딪히게 되는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자신의 능력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으로 정의하였고[18,32], 성취욕구는 자신의 능력발휘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로 정의하였다[12,32]. 위험감수성향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며[38], 통제위치 성향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통제 가능성 정도로 정의하고, 자신이 마음먹은 것보다 우연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는 외적 통제

성을 묻는 질문을 사용하였다[32,35,38]. 개인적 특성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자기효능감 3문항, 성취욕구 3문항, 위험감수성향 5문항, 외적 통제위치 성향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상호관계를 통해 구성된 상호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하였다[39].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인인 신뢰는 서로를 개방하고 거래비용과 감시비용을 줄이고, 정보의 교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긍정적 믿음과 기대로 정의하였고[10,39], 네트워크는 소상공인의 창업에 대한 성공기대를 높여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연결망으로 개념화하였다. 마지막 호혜적 규범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기업 간 공유된 목표와 가치, 비전이 내재되어 공유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 정의하였다[40]. 사회적 자본은 길대호(2017)와 강경란(2018)의 연구를 토대로 신뢰 3문항, 네트워크 4문항, 호혜적 규범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창업 컨설팅 경험을 제외한 창업의지, 창업불안,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자본 문항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2 조사 개요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기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온라인 서베이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23명의 데이터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표본의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및 월 평균소득, 창업 희망 업종, 그리고 창업 컨설팅 지원 경험 등 인구사회 통계적 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Table 1에 제시했듯이 평균 연령은 45.6세였고, 창업 희망 업종은 서비스업, 도소매업, 지식 창업 순서였으며, 본 연구의 조절변인인 창업 컨설팅 경험은 4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5.0을 활용했으며,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를 활용한 조절효과 검증은 일반적으로 Baron & Kenny(1986)의 단계를 따른다[41].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함께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인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ategories		N	%
Sex	Man	122	54.7
	Woman	101	45.3
Age	20s	32	14.3
	30s	27	12.1
	40s	68	30.5
	50s	81	36.3
	60s	15	6.7
	Mean	45.6 (S.D=11.35)	
Scholarship	high school	53	23.8
	college	29	13.0
	university	78	35.0
	graduate	63	28.3
Income	below 1 million won	34	15.2
	1~3 million won	74	33.2
	3~5 million won	76	34.1
	5~7 million won	19	8.5
	7~10 million won	11	4.9
	10 million won over	9	4.0
Job	Manager/Employee	23	10.3
	specialized job	32	14.3
	an office job	20	9.0
	technical position	12	5.4
	student	23	10.3
	farming/fishing industry	2	0.9
	service position	13	5.8
	self-employment	81	36.3
	etc.	17	7.6
Hope Industry	manufacturing	32	14.3
	wholesale/retail trade	45	20.2
	lodging/food	27	12.1
	service	53	23.8
	knowledge creation	41	18.4
	IT	9	4.0
consulting	have	107	48.0
	none	116	52.0
Total		223	100

4. 연구결과

4.1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이 단일 차원의 양극단에 위치한 개념인지, 다른 차원의 개념인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배리맥스 직각회전을 통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했으며, 요인 추출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이겐 값 1.0 이상, 주적재치가 0.5를 넘는 두 문항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독립된 요

인으로 인정하였다[10,42,43]. 한편,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를 통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모든 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706 이상에서 .916 사이로 드러나,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42].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을 측정한 12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KMO(Kaiser - Meyer-Olkin) 값은 0.854로 표본의 적절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유의하였고, 추출된 2개의 요인은 69.2%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를 볼 때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은 두 개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Table 2. EFA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 anxiety

	Factor1 : Anxiety	Factor2 : Intention
Anxiety10	.848	.070
Anxiety8	.844	.064
Anxiety9	.823	.013
Anxiety6	.820	-.038
Anxiety7	.814	-.010
Anxiety11	.763	.208
Anxiety12	.671	-.168
Intention2	.081	.903
Intention1	-.027	.895
Intention4	.018	.889
Intention5	-.052	.824
Intention3	.062	.806
Eigen values	4.490	3.818
% of Variance	37.420	31.815
Cumulative %	37.420	69.235
Cronbach's alpha	.900	.916
KMO=.854, Bartlett's sphericity $\chi^2=1874.7$, $p<.000$		

개인적 특성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차 적재(cross loading)를 나타난 2개의 통제위치 요인의 2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Table 3에 제시한 최종 13개의 문항 분석 결과 표본의 충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sphericity) 검증도 유의하였다. 위험감수성향,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통제위치 등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7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교차적재를 보인 호혜적 규범 1개 문항을 제거했으며,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KMO 값, Bartlett 검증, 문항 간 상관계수 등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의 3개 요인은 사회적 자본 전체 변량의 60.4%를 설명하였다.

Table 3. EFA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Fac1 : Risk-taking	Fac2 : Self-efficacy	Fac3 : Achievement	Fac4 : controlling
Characteristic10	.814	.186	.140	.037
Characteristic11	.755	.052	-.077	.202
Characteristic8	.737	.149	.248	.084
Characteristic7	.726	.241	.197	.058
Characteristic9	.558	.191	.378	-.196
Characteristic2	.194	.878	.172	.106
Characteristic1	.197	.850	.151	.082
Characteristic3	.202	.797	.282	.029
Characteristic5	.108	.165	.847	-.124
Characteristic6	.101	.208	.796	.054
Characteristic4	.271	.173	.775	.022
Characteristic12	.084	.060	-.016	.879
Characteristic13	.097	.104	-.032	.868
Eigen values	2.843	2.397	2.354	1.655
% of Variance	21.873	18.440	18.108	12.731
Cumulative %	21.873	4.313	58.421	71.152
Cronbach's alpha	.816	.870	.805	.741
KMO=.815, Bartlett's sphericity $\chi^2=1259.7$, $p<.000$				

Table 4. EFA of Social capital

	Factor1 : Trust	Factor2 : network	Factor3 : Norms
Social Capital2	.852	.088	.080
Social Capital1	.819	.046	.197
Social Capital3	.783	.189	.139
Social Capital5	.232	.780	.039
Social Capital7	.031	.724	-.056
Social Capital4	.138	.670	.138
Social Capital6	-.025	.651	.318
Social Capital11	.001	.085	.805
Social Capital8	.388	.120	.692
Social Capital9	.394	.110	.595
Eigen values	2.398	2.085	1.561
% of Variance	23.983	2.854	15.606
Cumulative %	23.983	44.837	60.442
Cronbach's alpha	.809	.788	.706
KMO=.801, Bartlett's sphericity $\chi^2=555.0$, $p<.000$			

4.2 가설검증 결과

4.2.1 개인적 특성과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특성과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먼저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Model 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F=68.314, p<.001), 창업의지 전체 변량에 대해 55.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4가지 세부요인들은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β값을 기준으로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향, 통제성향, 성취욕구 순으로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기효능감과 위험감수성향이 높고, 외적 환경 및 우연에 의해 결과가 나온다는 외적 통제성향이 강하고, 성취욕구가 클수록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on & Kenny(1986)의 조절효과 분석 단계[41]에 따라 조절변인을 투입한 Model 2는, R²의 증가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창업컨설팅 지원 경험은 창업의지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β=.123, t=2.699, p<.01). 한편 상호작용항으로 인해 야기되는 다중공선성(collinear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상항변수의 측정값에서 평균값을 빼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44]. 마지막 Model 3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0 이하로 공선성 문제는 없었고, Durbin-Waston 지수도 2에 가까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력(R²)의 증가폭은 제한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p<.10), 컨설팅 경험은 위험감수성향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만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위험감수성향 변인과 상호작용항의 비표준화 회귀계수(B)를 합산한 결과,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개인적 특성과 창업컨설팅이 창업불안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창업불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6과 같다. 개인적 특성이 창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Model 1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전체 변량의 26.3%를 설명하였다. 개인적 특성의 세부요인에서는 통제성향만 창업불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고, 다른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우연이나 환경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외적 통제성이 강할수록 창업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인적 특성의 모든 요인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과 다른 결과이며,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에 소상공인의 개인적 특성이 차별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컨설팅 경험을 투입한 Model 2에서 Model 1과 설명력

Table 5. Individual Characteristics X Consulting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Variable	B	Beta	t	VIF
Ch1 efficacy	.489	.445	8.156***	1.463
Ch2 achievement	.173	.108	2.028 *	1.406
Ch3 risk-taking	.414	.317	5.938***	1.404
Ch4 controlling	.108	.109	2.335 *	1.067
Ch1 efficacy	.468	.427	7.867***	1.487
Ch2 achievement	.189	.119	2.250 *	1.414
Ch3 risk-taking	.420	.322	6.109***	1.405
Ch4 controlling	.089	.090	1.936 †	1.092
consulting	.247	.123	2.699 **	1.050
Ch1 efficacy	.432	.393	7.148***	1.560
Ch2 achievement	.222	.140	2.583 *	1.510
Ch3 risk-taking	.409	.313	5.944***	1.433
Ch4 controlling	.093	.093	1.999 *	1.126
consulting	.238	.118	2.598 *	1.069
Ch1m X consulting	-.113	-.051	-.899	1.685
Ch2m X consulting	.243	.077	1.435	1.490
Ch3m X consulting	-.316	-.116	-2.077 *	1.618
Ch4m X consulting	.000	.000	-.005	1.112

Dependent Variable :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l 1 : R²=.556, F=68.314 (p<.001)
 Model 2 : R²=.571, F=57.684 (p<.001), ΔR²=.014 (p<.01)
 Model 3 : R²=.587, F=33.594 (p<.001), ΔR²=.016 (p<.10)
 Durbin-Watson=1.753
 † p<.10, * p<.05, ** p<.01, *** p<.001

Table 6. Individual Characteristics X Consulting effect on Entrepreneurial Anxiety

Variable	B	Beta	t	VIF
Ch1 efficacy	-.089	-.077	-1.098	1.463
Ch2 achievement	.163	.097	1.412	1.406
Ch3 risk-taking	-.096	-.070	-1.020	1.404
Ch4 controlling	.551	.529	8.801***	1.067
Ch1 efficacy	-.046	-.040	-.545	1.615
Ch2 achievement	.168	.100	1.459	1.407
Ch3 risk-taking	-.124	-.090	-1.295	1.448
Ch4 controlling	.561	.537	8.946***	1.076
consulting	-.198	-.102	-1.643	1.142
Ch1 efficacy	-.045	-.039	-.489	1.933
Ch2 achievement	.178	.106	1.497	1.523
Ch3 risk-taking	-.143	-.104	-1.494	1.472
Ch4 controlling	.545	.523	8.718***	1.088
consulting	-.198	-.101	-1.624	1.179
Ch1m X consulting	-.143	-.058	-.765	1.734
Ch2m X consulting	.173	.051	.718	1.498
Ch3m X consulting	.006	.002	.030	1.455
Ch4m X consulting	.326	.155	2.608 *	1.073

Dependent Variable : Entrepreneurial anxiety
 Model 1 : R²=.263, F=19.447 (p<.001)
 Model 2 : R²=.272, F=16.219 (p<.001), ΔR²=.009 (p>.05)
 Model 3 : R²=.296, F=9.948 (p<.001), ΔR²=.024 (p<.10)
 Durbin-Watson=1.918
 † p<.10, * p<.05, ** p<.01, *** p<.001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컨설팅 경험 또한 창업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단계로 상호작용을 투입한 3단계에서 VIF 지수와 Durbin-Waston 지수를 확인한 결과 공선성 문제는 없었고, 잔차항의 독립성도 확보되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ΔR^2 의 p값도 유의했으며, 컨설팅 경험이 외적 통제성이 창업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2.3 사회적 자본과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지에 대한 사회적 자본과 창업컨설팅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Model 1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26.766, $p<.001$), 전체 변량의 26.8%를 설명하고 있었다. 네트워크($\beta=.363$, $t=5.898$, $p<.001$)와 신뢰 요인($\beta=.225$, $t=3.423$, $p<.01$)은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호혜적 규범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경험을 투입한 Model 2는 창업의지에 대한 설명력을 4%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p<.01$), 컨설팅은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Table 7. Social Capital X Consulting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Variable	B	Beta	t	VIF
So1 trust	.323	.225	3.423**	1.295
So2 network	.471	.363	5.898***	1.135
So3 norms	.115	.080	1.197	1.328
So1 trust	.302	.210	3.267**	1.301
So2 network	.432	.333	5.489***	1.159
So3 norms	.136	.094	1.444	1.334
consulting	.374	.202	3.530**	1.029
So1 trust	.278	.194	3.029**	1.336
So2 network	.448	.346	5.780***	1.166
So3 norms	.151	.105	1.633	1.337
consulting	.377	.203	3.621***	1.029
So1m X consulting	-.283	-.098	-1.529	1.328
So2m X consulting	-.348	-.133	-2.244 *	1.144
So3m X consulting	.012	.004	.067	1.340

Dependent Variable :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l 1 : $R^2=.268$, $F=26.766$ ($p<.001$)
 Model 2 : $R^2=.308$, $F=24.239$ ($p<.001$), $\Delta R^2=.040$ ($p<.01$)
 Model 3 : $R^2=.341$, $F=15.886$ ($p<.001$), $\Delta R^2=.033$ ($p<.05$)
 Durbin-Watson=1.679
 † $p<.10$, * $p<.05$, ** $p<.01$, *** $p<.001$

사회적 자본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컨설팅 지원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 Model 3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력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컨설팅 경험은 네트워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4.2.4 사회적 자본과 창업컨설팅이 창업불안에 미치는 영향

Table 8에 제시한 것처럼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규범 등 사회적 자본이 창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변량의 15.7%를 설명하였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세부요인에서 호혜성 규범($t=5.765$, $p<.001$)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신뢰와 네트워크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세부요인이 창업의지와 불안에 완전히 다르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컨설팅 경험을 추가한 Model 2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Model 3은 회귀식의 설명력 차이(ΔR^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창업컨설팅의 창업불안에 대한 직접효과 및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Social Capital X Consulting effect on Entrepreneurial Anxiety

Variable	B	Beta	t	VIF
So1 trust	-.091	-.060	-.852	1.295
So2 network	.035	.025	.384	1.135
So3 norms	.626	.412	5.765***	1.328
So1 trust	-.087	-.058	-.809	1.308
So2 network	.043	.032	.465	1.212
So3 norms	.622	.410	5.692***	1.341
consulting	-.051	-.024	-.373	1.089
So1 trust	-.034	-.022	-.302	1.423
So2 network	.053	.039	.550	1.280
So3 norms	.606	.399	5.482***	1.381
consulting	-.107	-.051	-.748	1.203
So1m X consulting	.075	.025	.334	1.445
So2m X consulting	-.339	-.112	-1.576	1.307
So3m X consulting	.392	.125	1.610	1.561

Dependent Variable : Entrepreneurial anxiety
 Model 1 : $R^2=.157$, $F=13.617$ ($p<.001$)
 Model 2 : $R^2=.158$, $F=1.208$ ($p<.001$), $\Delta R^2=.001$ ($p>.05$)
 Model 3 : $R^2=.176$, $F=6.579$ ($p<.001$), $\Delta R^2=.019$ ($p>.05$)
 Durbin-Watson=1.626
 *** $p<.001$

5. 결론

5.1 결과의 요약 및 논의

생계형 창업의 절박함과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창업지원 정책에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소상공인 창업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창업포기와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창업불안을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창업의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은 하나의 차원에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별개의 차별적 변인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에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선행요인과 창업의지 및 불안과의 관계에서 창업컨설팅 경험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외적 통제성, 성취욕구 등 모든 개인적 특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과 다르게, 외적 통제성이 낮을수록 창업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와 관계는 성과 지향과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성, 혁신성이 창업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12,22,38,45]와 큰 맥락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외적 통제성이 창업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을 구분하고, 우연에 의한 외적 통제성이 창업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2]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다만 외적 통제성이 높을수록 창업불안과 창업의지 모두 높인다는 결과는 특기할 만하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결과들이 자신의 노력보다는 운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믿을수록 창업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우연과 행운에 의해 창업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세부요인 중 네트워크와 신뢰 자본은 창업의지를 높이는 반면, 호혜성 규범이 낮을수록 창업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이익을 위해 사회적 연계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자본이 창업의지에 정적(+) 영향을 나타낸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26,27,39]와 유사한 결과였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본과 인적 자원 등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창업의지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와 신뢰의 형성이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반대로 모두 지켜야하는

상호 간 약속인 호혜성 규범에 대해 자신만 손해를 본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창업의지 보다는 창업에 대한 불안감과 강하게 연결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창업 컨설팅이 창업자들이 현재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컨설팅의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외에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창업 컨설팅은 창업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창업불안에는 직접적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창업컨설팅이 창업의지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35,46]. 또한 컨설팅 경험은 위험감수성향과 네트워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고, 외적 통제성이 창업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과 경제흐름 등 환경적 요인을 조언해주는 컨설팅은 위험을 감수하고 무조건 창업을 강행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운이나 우연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창업을 실행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적인 결과는 실무적, 학술적 차원에서 의의를 가진다. 먼저 창업불안에 대한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이 구별되는 개념이며, 각각 다른 요인들에 의해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학문적 확장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과 위험감수성향을 높이고, 외적 통제성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상호 유대관계와 신뢰를 높이는 반면 규범을 줄이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지원 전략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 또한 창업 컨설팅만 단독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교육과 자금 지원 등과 연계가 필요하며, 창업자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을 구별하고, 차별적인 선행요인을 분석한 점은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라고 할 수 있지만, 창업불안에 대한 검증은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에는 다른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포함시키고, 창업불안과 창업의지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창업불안과 창업의지 등 주요 변인들을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근거한 점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창업컨설팅 경험 여부는 엄밀히 말해 객관적 변수라 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창업컨설팅을 받은 응답자들로 한정해 측정의 엄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기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에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에는 다양한 지역, 업종,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D. Y. Kim. (2015). Changes in Public Consciousness and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Hyundai Research Institute*, 15(36), 1-18.
- [2] Y. K. Jung. (2018.10.12.). *Baek Jong-won, a reference to the parliamentary audit, said, "We need to increase the threshold of starting our own business."* Hankyoreh Newspaper.
- [3] S. J. Moon. (2018.10.12.). *The closing rate is 72%... "If I had a job, I would have started it."* Koomin Daily.
- [4] K. S. Song. (2013). The Effects of Small Business CEO's Start-up Environment on Fear of Business Failure and Entrepreneurial Failur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2), 393-407.
- [5] M. K. Kwon & H. S. Yang. (2016).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Fusion of Industries :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failure burde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5), 21-37.
- [6] B. H. Yoo. (2015). The Effect of Achievement Needs and Entrepreneurship on the Start-up Intention : Focus on Mediation Role of Start-up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51-60.
- [7] D. W. Lee. (2016).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Small Businesses on Educational Outcom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 [8] R. J. Lewicki, D. J. McAllister & R. J. Bies. (1998). Trust and distrust: New relationships and realit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438-458.
- [9] D. J. McAllister, K. Pang, H. H. Tan, & Y. Ruan. (2006). *Social dynamics of paranoia and distrust in team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Atlanta.
- [10] D. K. Kim & H. S. Yang. (2017).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Psychological Contract on Turnover Intention as Mediated by Trust and Distrust.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5(8), 115-126.
- [11] A. Shapero & L. Sokol. (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12] S. S. Park & S. I. Kang. (2007).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ravel Agency Employe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1(2), 187-204.
- [13] J. W. Park, S. K. An, & I. C. Yoon. (2011).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 Career Orient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4(4), 2499-2520.
- [14] D. Y. Chung. (1999).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Social-Cultural Dimensions.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10(1), 59-85.
- [15] E. J. Kim. (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the youth with Social Anxiet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Daejeon University.
- [16] H. D. Kim & C. G. Lee. (201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Young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hip Anxiety. *Journal of the Korea Entrepreneurship*, 13(2), 53-76
- [17] C. H. Yook & I. O. Jeon. (2014).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Mentoring 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661-676.
- [18] A. Bandur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19] J. K. Lee, H. C. Kim & T. H. Ahn. (2014). Self-Efficacy and Firm Performance: The Role of Entrepreneurial

-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Experience. *Korean Management Review*, 43(2), 561-586.
- [20] H. M. Oh, C. Y. Lee & J. S. Kim. (2014). The Study on the Women Entrepreneurs' Psychological, Environmental, Personal Factors Affecting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2), 45-60.
- [21] C. S. Kim. (2010).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between Korea and China*.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22] J. W. Lee, A. J. Lee & N. H. Kim.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Trait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o-cultural Background.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5(2), 267-286.
- [23] D. I. Woo. (2015). *The Study That How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Impact Entrepreneurship, Social Capital, and Corporate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 [24] P. Bourdieu.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New York: Greenwood.
- [25] L. T. Hosmer. (1995). Trust: The connecting link between organizational theory and philosophical ethic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2), 379-403.
- [26] J. Y. Park & H. S. Yang (2014).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2), 97-107.
- [27] C. G. Park & C. O. Kim. (2018). The Effect of Small Business Owner's Social Capital on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Entrepreneurship*, 13(2), 1-28.
- [28] A. Kianto & J. Waajakoski. (2010). Linking social capital to organizational growth.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 Practice*, 8(1), 4-14.
- [29] J. Y. Park & C. S. Sung. (2016). The Effect of Entrepreneurs' Social Network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87-96.
- [30] P. S. Adler & S. W. Kwon. (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7-40.
- [31] M. J. Kim. (2014). *Study on Effects of Support Programs for Business Performances of Small Enterprise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Hoseo University.
- [32] Y. S. Jung. (2018). *The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Startup Education, Startup-Relevant Knowledge,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Hanbat National University.
- [33] M. Y. Cho. (2014).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CEO'S preparation and the R&D performance of technology based startup companie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34] Y. H. Yu & D. W. Yang. (2008).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5), 2347-2368.
- [35] D. H. Lee. (2016).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ompetency Characteristics on Performance for Start-up: Moderating Effect of Start-up Consulting of Consulting Support Program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Hanbat National University.
- [36] Ja. H. Kang. (2015). *A Study on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37] S. H. Park.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SME Start-up Environment,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Fear of Business Fail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ed Effects of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Mediated Effects of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38] W. J. Kim & H. Y. Chung.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the Performance of Small Firm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3), 33-60.
- [39] G. L. Kang. (2018).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Reemployment Intentions of the Baby-Boom gener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40] D. H. Kil. (2017).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rospective Retire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Hanbat National University.
- [41]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42] H. S. Lee & H. Lim. (2009). *SPSS 16.0 manual*. Paju, Bobmunsu.
- [43] B. D. Na & J. G. Kim. (2015).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Convergence and Work-Family Confli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8), 207-220.
- [44] C. H. Choi & Y. Y. You. (2017). The Study on the Different Moderation Effect of Contingency Variable (Focused on SPSS statistics and AOMS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89-98.
- [45] I. C. Yoon. (2017). Effect on startup mentoring, education satisfaction, and startup inten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265-273.
- [46] H. W. Yim. (2018). A Study on the Causes and Consulting Methods to Reduce the Differentiation of Incubator Cente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313-320.

봉 구 원(Bong, Gu Won)

[정회원]



- 2014년 2월 : 호서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창업컨설팅 졸업(석사)
- 2017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 박사수료
- 2008년 3월 ~ 현재 : 한국KP경영

컨설팅 대표

- 관심분야 : 창업, 컨설팅
- E-Mail : sigmaman6@daum.net

김 중 규(Kim, Joong Gyoo)

[정회원]



- 1999년 6월 ~ 2003년 5월 : 현대정보기술 상무
- 2004년 9월 ~ 2006년 7월 : 동부정보기술 부사장
- 2007년 1월 ~ 2008년12월 : 디비정보통신(구 고속도로정보통신)

사장

- 201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
- E-Mail : hsyang@hoseo.edu